



2019년 5월 5일(제927호) 부활 제3주일(생명 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생명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지세”

오늘은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린 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족을 위한 특별한 날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겨울을 지나 파릇파릇 돋은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생명의 시기이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탄생은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를 기리는 달이 바로 5월이며, 이에 교회에서도 5월 첫 주일을 생명 주일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생명!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어 우리가 육과 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한 신께서 무엇이 어렵다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더욱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랑을 필요로 하셨음을, 이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 몫이 돌아오게 됩니다.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함으로써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점점 더 사랑이 깊어지고 그분께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귀찮다는 이유로,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굶겨 죽이거나 폭행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무참히 살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차마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한국 사회가 성에 대해 많이 개방되었다고들 하십니다. 그 가운데 사랑에 대한 의미는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듯합니다. 남녀의 관계가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으로 전락하고 성에 대한 상품화가 가속화되면서 아이들 또한 이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면적인 부분이 강조됨에 따라 드라마와 같이 판타스틱적인 요소들만이 쉽게 자극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희생, 인내 이에 따른 가치들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하고 강하던 어머니의 모성애와 높고 높던 아버지의 부성애가 점차 과거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됩니다. 이 문제들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히 교회 안에서도 크나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는지, 그 안에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매번 듣던 이야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한번 모습을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안락함과 쾌락만을 좇고 있진 않은지, 이 생명 주일을 맞이하여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박성빈(2019년) 신부  
홍성대(10진비전) 상당 주일

**제 1 특 시** 사도 5,27ㄴ-32.40ㄴ-41

**회 답 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 2 특 시** 묵시 5,11-14

**복음 본호송**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복 음** 요한 21,1-19

**영 성 제 송**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안군심 리카르도



**성인명:** 안군심 리카르도 (安-- Richard)  
**신분:** 순교자  
**활동연도:** 1774-1835년

1774년 충청도 보령에서 태어난 안군심 리카르도는 청년 시절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 경상도로 이주하였으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교회 서적을 बे끼는 일에 몰두하면서 살았다.

본디 명랑한 데다가 겸손하고 친절하였던 안 리카르도는 누구나 애덕으로 대하였고, 그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는 것을 낙으로 알고 생활하였다. 또 그는 자식들의 교육에도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와 묵상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으며, 보통 일주일에 세 번씩은 금식제를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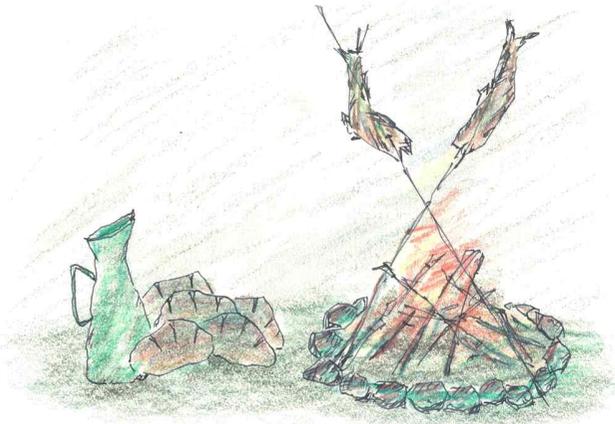
언제인가 안 리카르도는 포졸들에게 체포된 적이 있었다. 이때 그는 관장 앞으로 끌려나가 모호한 말로 대답하여 석방되었고, 이후로는 언제나 그때 분명하게 신앙을 증언하지 못한 것과 용기가 부족하였던 것을 후회하였다. 1827년 정해박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안 리카르도는 언젠가는 자신도 체포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동안 교우들에게 나누어 준 서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얼마 동안 숨어 지내면서 순교할 준비를 하였는데, 상주 포졸들이 마침내 그곳을 찾아내서 그를 체포하였다. 관장은 천주를 배반하고 동료들을 밀고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안 리카르도는 이를 거절하고 형벌을 받았다. 이후에도 그는 자주 옥에서 끌려나가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언제나 끈기 있게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러자 관장은 그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대구로 이송토록 하였다.

안 리카르도는 대구 감영에 도착한 뒤에도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고는 다시 옥으로 끌려가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8년 동안 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1835년 이질에 걸려 사망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61세였다.

복	음	묵	상
---	---	---	---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식사합니다.



빵과  
 물고기  
 포도주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와서,  
 아침 드세요.

상화이야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으시는 예수님



콘라드 위츠, 1444년 제작  
 패널 위 유화, 132x154cm / 제네바 미술관, 스위스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사목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첫 번째 기적과(루카 5,1-11),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활하신 후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으시는 두 번째 기적으로 구분된다. 그림들에서도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지만, 두 번째 기적은 물에서 계시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렸다.

이 그림은 성경에 나오는 티베리아스 호수 대신, 화가가 거주하고 있던 지방의 호수 및 풍광을 그대로 그려내었고, 심지어 산 모양과 나무 종류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고 전해진다. 많은 수의 고기를 잡느라 애쓰는 제자들의 자세 및 무거워진 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호수 표면 및 물 때문에 생기는 굴곡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그 당시 그림에서 볼 수 없던 뛰어난 사실감을 구현하였다.

예수님은 붉은 옷을 입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모습에서 위엄이 느껴진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부활 제3주일: 한성대 성서헌 신부

◆ 교구장 동정

- 자운대(육군교육사) 성당 사목방문  
 때: 5월 5일(주일)
- 통일기원 성모의 밤  
 때·곳: 5월 11일(토) 16:00, 제22사단 통일전망대

◆ 군신교단 미사 및 모임

때·곳: 5월 10일(금) 18:00, 군중교구청 1층 소성당

◆ 교구 청소년대회 참가 신청 안내

- 대상 : 교구 내 중1~고2 청소년(총 30명)
- 일시 : 2019년 7월 29일(월)~8월 2일(금)
- 장소 : 베트남 다낭
- 금액 : 130만원(총 170만원, 교구지원 40만원)
- 모집기한 : 2019년 5월 31일(금)
- 문의 : 교육국(02-749-1921, 내선번호 4번)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